'법성 공덕' 은 다할 수가 없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수행신심분〉을 설하고 난 다음 〈권수이익분〉을 설하면서 지금까지 설해온 내용을 마무리하고 논의 수지를 권장한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마하연, 비밀스런 법을 내가 이미 다 설했으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여래의 깊은 경계에 바른 믿음을 내어 멀리 비방에서 떠나 대승의 도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이 논을 지녀 잘 생각해 닦아 익히면 최후에 가서 위없는 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법을 듣고 겁먹은 나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부처의 종자를 이어 받아 반드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논을 받아 지녀 뜻을 살펴 수행하되 하루 밤낮만 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가령 시방의 일체 부처님들께서 각각 한량없는 아승지겁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능히 다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성의 공덕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그와 같아 끝이 없기 때문이다."

대승의 비장(秘藏)은 소승에서 설하지 않은 부처님이 숨겨 놓았던 법문이다. 기신론이 이것을 설해 대승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승(mahayana)을 총괄적으로 설하고 마지막으로 이 대승을 수지하는 이익을 밝힌 대목이다.

만약 누구든지 지극히 심오한 여래의 경지에 대해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간직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여 몸소 실천해 나가면 도(道)에 이를 수 있다고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세속적인 착한 일도 중요하지만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이치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 논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여도 그 공덕은 무량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법성의 공덕, 곧 진여 그대로인 마음의 공덕이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논의 내용을 헐뜯고 비방하는 죄의 과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 어떤 중생이 이 논의 내용을 헐뜯고 비방하여 믿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 얻는 죄의 과보는 한량없는 겁이 지나도록 큰 고뇌를 받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응당 우러러 믿을 것이요, 헐뜯고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기신론은 대승의 믿음 강조

論 이해 · 실천하면 道 이르러

하지 않으면 깊이 스스로를 해치고 또한 남을 해쳐서 일체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게 된다.

일체 여래가 모두 이 법을 의지하여 열반을 얻으며, 일체 보살들도 이 법으로 인하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간다. 마땅히 알아 둘 것이니, 과거의 보살들도 이미 이 법을 의지해 깨끗한 믿음을 이루었으며, 현재의 보살들도 지금 이 법을 의지해서 깨끗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들도 이 법을 의지해 깨끗한 믿음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중생들이 응당히 부지런히 닦아 익혀야 한다."

이 대목은 정법수호(正法守護)에 대하여 말해 놓은 것이다. 대승의 법을 믿고 따를 때 삼보의 종자가 싹이 트고 성장하여 법성의 다함없는 공덕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지런히 닦고 익혀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마감하였다.

마지막으로 끝에 회향게송이 붙어 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귀명게송처럼 논주인 마명(馬鳴)의 발원이 담겨 있다.

부처님의 매우 깊고 광대한 뜻을
내 이제 능력대로 모두 설하였으니
이 공덕 되돌려 법성과 같이 해서
널리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소서

기신론을 지은 공덕이 결국 중생계를 이롭게 하는 데 돌아가게 해 달라는 염원이다. 대승의 근본정신인 이타원력이 드러난 게송이다. 법성이 지니고 있는 본래공덕 그대로 중생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은혜로운 보시는 항상 즐겁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㊲보살이 행하는 보시

菩薩內自思惟。因於乞者得施快樂。使乞者得無上菩提為法施檀越。諸乞求者見菩薩大施。而問之言。為求何等而等行大施。菩薩各答言。我今不求人天果報聲聞涅槃。願得無上菩提拔濟一切眾生。諸慳貪者而作念言。菩薩云何能行大施心不疲厭。菩薩答言。我師三界尊悲念一切眾生。我今無以報師恩故施無疲厭。一切之樂無勝解脫樂者。我愛眾生勝愛解脫。我以愛念眾生欲令得解脫故修種種施。若生死不極苦者。我施終不求菩提。以生死苦故我施求菩提。拔生死苦者誰之所作。煩惱以業之所造作。使一切眾生以悲心為體常樂惠施。(보살내자사유。인어걸자득시쾌락。사걸자득무상보리위법시단월。제걸구자견보살대시。이문지언。위구하등이등행대시。보살각답언。아금불구인천과보성문열반。원득무상보리발제일체중생。제간탐자이작념언。보살운하능행대시심불피염。보살답언。아사삼계존비념일체중생。아금무이보사은고시무피염。일체지락무승해탈락자。아애중생승애해탈。아이애념중생욕령득해탈고수종종시。약생사불극고자。아시종불구보리。이생사고고아시구보리。발생사고자수지소작。번뇌이업지소조작。사일체중생이비심위체상락혜시。)

번역

보살은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걸하는 이로 인하여 보시의 즐거움을 얻었으니, 구걸하는 이가 위없는 보리를 얻도록 법을 보시하는 단월이 되리라' 합니다. 모든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큰 보시를 보고 물어 말하되, "구하는 이를 위하여 어찌하면 동등하게 대할 수 있으며, 동등하게 큰 보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면, 보살이 대답하여 말하되, "저는 지금 사람이나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나 성문의 열반을 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상보리를 얻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가 생각하여 말하기를, "보살은 어찌 능히 대비심을 행하되 피로와 염증이 없는 것입니까." 보살이 대답하기를, "나의 스승은 삼계에 존귀하시고, 자비롭게 일체 중생을 생각하시나니, 내가 지금 스승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보시에 피로와 염증이 없습니다. 일체의 즐거움이 수승한 해탈의 즐거움만 못하나니, 나에게는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 수승한 해탈입니다. 나는 중생을 아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탈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가지가지 보시를 닦습니다. 만약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지 못하면, 내가 베풀어도 끝내 보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생사의 고통 때문에 내가 베풀고 보리를 구하는 것이니,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는 일을 뉘가 할까요. 번뇌는 업으로써 지은 바이거니와, 일체 중생이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게 하면 은혜로운 보시는 늘 즐겁습니다" 합니다.

해설

〈대장부론〉의 7품에서 중생이 보살에게 두 가지를 묻는다. 하나는 어떻게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대하며, 동등하게 보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대비심을 행하되 염증과 피로를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중생심은 친한 이에게는 좀 더 베풀고, 제 마음에 꺼리는 이에게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속성임을 알려준다.

이에 대해 제바라보살은 보살심은 서방정토에 태어나거나 성문연각(聲聞緣覺)의 열반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문연각의 열반은 성불과 더불어 열반사상인 대승불교와는 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스승이신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중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반을 삼기에 동등하게 중생을 대할 수 있고, 베풀어도 과보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니 염증과 피로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제는 지난 오늘, 내일은 다가올 오늘
머묾없이 감춤없이 자연인으로 살아가자

떠나는 날

떠나는 날은
아플 것 같다.
짠한 멍울 속
그리움이
마음을 아리게 하여
하늘 한 번
땅 한 번
바라 다 보며
두어 방울의 눈물방울
흘릴 것 같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가슴 싸한 이야기 거리가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꽃잎처럼 지는 걸 지켜보며
서서히 떠나가리니
안녕이란 말을
차마 반쯤 남기며.

티베트에서 머물며 죽음을 앞당겨 쓴 글이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떠나는 날의 자유를 실천하고 싶다.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누구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마지막 그림자를 스스로 거두고 싶다. 지난 8월 13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우선 옮겨 보겠다.

"미국 캘리포나아주 모하이에 사는 41세 화가 베치 데이비스는 지난달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에게 이메일로 파티 초대장을 보냈다. 특별한 드레스코드도 없고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 출수 있는 파티였지만 한가지 규칙이 있었다. 절대 파티 주인공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데이비스가 직접 준비한 '생애 마지막 파티' 였다.

데이비스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6월 미국 주 가운데 다섯 번째로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지 한 달여 만에 안락사를 택하게 됐다. 난치병인 루게릭병이 악화해 서 있을 수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데이비스는 안락사법이 통과된 이후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최후를 계획했다. 그녀의 계획에 따라 지난달 23~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파티에는 30명 가량의 지인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파티에 모인 이들은 첼로와 하모니카 연주를 감상하고 데이비스가 좋아하던 동네 피자집에서 사온 피자를 나눠 먹으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를 함께 봤다. 데이비스가 자신의 옷 중에 친구들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나눠준 후 친구들이 유쾌한 패션쇼를 벌리기도 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친구들과 작별의 키스를 나눈 데이비스는 생애 마지막 일몰을 본 후 24일 저녁 가족과 간병인,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품을 투여받고 숨을 거뒀다. 루게릭병 진단 후 2013년 일본으로의 버킷리스트 여행에서 산 기모노를 입은 채 였다.(이하생략)"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두려워한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연합뉴스의 기사를 옮기며 41세의 화가여인이 또 다른 선지자임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 이론으로는 화려한 논리를 펼 수 있으나 실천으로 옮기는 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이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지만 엄연히 둘이요, 불생불멸(不生不滅)이 진리라지만 불멸(不滅)의 꿈을 키우는 것은 진시황제만이 아닐 터이다. 수행자라면 삶의 길이만큼 내용도 개운하고 말끔해야겠지만 마무리의 자유로움도 완성해야 할 수행의 덕목일터. 다만 앉아 죽던 누워 죽던 물구나무서서 죽던 죽음의 마침표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논외(論外)로 접어두자.

오로지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넉넉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밝고 맑은 빛으로 살 일이다. 꾸미지 말고 보태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이고 물처럼 바람처럼 덜 집착하며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날마다 떠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오늘로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갈 오늘이므로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오늘의 삶의 주인공인 것. 머묾없이 지음 없이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것.

더디고 빠르게 올 것이 와서, 떠나는 날이 오게 되면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한 점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게.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1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 학 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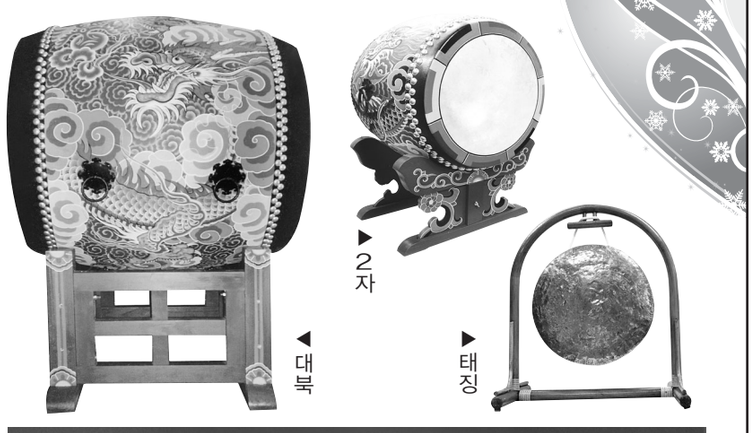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